17세기 중반 활동한 新발견 불모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㉔ 계찬(戒贊) 스님







계찬 스님이 조성한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의 개별 모습. 사진 왼쪽부터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 사진 일괄 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목조석가불좌상 대좌 적힌 조성묵서 일부.



계찬 스님이 만든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 전체 모습.

1640~70년대 불상 조성 불사 참여

승일·응혜 계보… 전국 무대로 활동

순천 동화사 삼세불상 現 유일 작품

2011년 정밀조사하며 조성기 확인돼

17세기 중반은 시군(市郡)을 대표하는 사찰에 전각 건립과 더불어 불상이 제작되면서 수백 명의 조각승이 활동한다. 조각승들은 특정 사찰에 거주하면서 선맥(禪脈)을 따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다. 특히 1650~80년 전국에 걸쳐 많은 불상들이 제작되는데, 불상은 전각에 맞게 100cm 정도의 중형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이 불상 조성은 하나의 계보에 속하는 6~7명의 조각승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 시기에 제작된 불상이 계속 조사된다면 여러 명의 조각승의 삶과 작품 세계가 밝혀질 것이다. 그 가운데 계찬 스님은 최근 기년명 불상이 발견되어 불상 양식이 밝혀진 조각승이다. 계찬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사적기(寺蹟記)를 통해 활동 시기와 조각승 계보 등을 알 수 있다.

계찬 스님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가장 빠른 유물은 1643년에 응혜(應慧) 스님과 제작한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다. 이 명부전 불상은 응혜 스님, 희장(熙莊) 스님, 선홍(善弘) 스님 등이 제작하였다.

그 후 계찬 스님은 1646년에 승일(勝日) 스님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조성하는데, 계찬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7명 가운데 5번째로 언급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님은 1647년에 응혜(應惠) 스님과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1640년대에 나이가 30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계찬 스님은 1648년에 승일 스님이 만든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에 보조화승으로, 1651년에 응혜 스님과 경남 진주 은정대 불상을 제작할 때 두 번째로 언급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657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순천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만들고, 1671년에 응혜 스님과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보살상 1구는 제주 심광사 봉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계찬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43년부터 1671년까지이다. 계찬 스님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161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 1630년대에 불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후, 1640년대에 승일 스님과 응혜 스님 등과 불상을 제작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아 부화승으로 활동하다가 1650년대에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을 주도한다. 계찬 스님은 165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 경남 진주, 전남 순천, 전남 장성 등의 사찰 내 불상 제작을 주도한 것을 보면, 166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도적으로 만든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찬 스님의 스승이나 선배로 추정되는 응혜 스님은 17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이다. 응혜 스님은 1639년에 청헌 스님과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수화승으로 1643년에 달성 용연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1647년에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60년에 전남 담양 호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 소장)을, 1678년에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한 인계(印戒) 스님은 1678년에 응혜 스님과 지리산 소은난야 목조대세지보살좌상(광양 무등암 봉안)을, 1689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사민(思敏) 스님은 1689년에 인계 스님과 여수 흥국사 53불좌상을 조성하였다.

계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현진(-1612-1637-)→ 승일(-1622-1670-)→ 응혜(-1639-1678-), 계찬(-1643-1671-)→ 인계(-1651-1714-), 사민(-1657-1689-)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계찬 스님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현진 스님의 계보로, 승일 스님과 응혜 스님을 이은 조각승이다.

계찬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은 전남 순천시 별양면 개운산에 자리 잡은 동화사(桐華寺)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9교구 화엄사(華嚴寺)의 말사로,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혁을 알 수 있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동화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파괴되어 1601년에 신총(信聰) 스님이 대웅전을 건립한 후, 1630년에 계환(戒環) 스님이 중창하였으며, 1662년에 희안(熙安) 스님과 법홍(法弘) 스님 등이 호선루 건립과 기와 불사를 하였다.

대웅전 내 수미단(須彌壇) 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루어진 삼세불(三世佛)이다. 이 불상은 2011년 8월 9일에 사찰 측의 의뢰로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정밀조사를 계기로 목조불상을 만든 수종(樹種)과 연륜분석(年輪分析) 및 복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불상 내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에 적힌 조성묵서가 발견되었다.

목조석가불좌상은 높이가 115cm 무릎 너비가 78cm인 중대형이다. 불상은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에 윗부분이 둥글고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단순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삼도(三道)를 표현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목 밑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늘어지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밑에서 한 가닥이 완만하게 펼쳐지면서 옆으로 두 가닥이 오른쪽 바닥으로 접혀 있고, 반대쪽 대의자락도 대칭을 이루듯 세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있다. 측면에 늘어진 대의자락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 주름이 팔(八)자형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내려오다가 앞 주름은 손목으로, 뒤 주름은 엉덩이 방향으로 접혀 있다. 가슴에 입은 승각기는 상단을 수평으로 접고 앞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다.

석가불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하고, 왼손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인(手印)은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 가운데 석가불이 주로 취한 자세이다. 협시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본존인 석가불과 같이 조선 후기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취하고 있다. 석가와 약사불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 비슷하지만, 아미타불은 둥근 얼굴형과 인상에서 앞에서 언급한 불상과 차이가 있다.

또한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석가불과 약사불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였지만, 아미타불은 가슴까지 내려와 물방울 같은 U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왼쪽 무릎을 감싸고 있는 소매 자락은 석가와 약사불이 조각되지 않은 반면, 아미타불은 끝자락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와 약사불의 배 부분에서 편삼과 대의자락이 접히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데, 약사불 같이 거의 수평으로 단(段)을 이루며 접힌 형태는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협시불이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자세와 방향도 같아 기존의 삼존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요소이다. 따라서 목조삼세불좌상은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착의법이 약간 달라 석가와 약사불은 같은 수화승이 만들었지만, 아미타불은 조형 감각이 다른 작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은 각각의 불상에서 조성발원문과 대좌 묵서가 남아있는데, 석가와 약사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연화질(緣化秩)과 시주질(施主秩)이 각각 1명씩 다르지만,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비교해 보면 재목(材木), 복장(腹藏), 개안(開眼), 칠보(七寶), 공양(供養), 면금(面金), 이면(裏綿), 오향(五香), 체금시주 등이 다르다. 또한 대좌에 적힌 묵서는 세 구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조성발원문과 비교해보면 화원(畵員) 마지막에 해원(海元) 스님, 별좌(別座) 마지막에 해견(海堅) 스님이 더 언급되어 대좌 조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목조삼세불좌상의 조성발원문에 언급된 인명은 총 57명으로, 석가불(42명), 아미타불(39명), 약사불(42명)이 언급되어 있다.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26명으로 재가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불상 제작의 대화사 법홍(法弘) 스님은 현판 '낙안군개운산동화사중창기(樂安郡開雲山桐華寺重 記)'에 의하면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암 도갑사,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광주 서석사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년에 동화사에서 복원에 주력한 스님이다. 재가자 중에는 이순형(李舜亨)이 조선 시대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인 주부(主簿)로, 안지윤(安之尹)이 생원으로 언급되었을 뿐, 대부분 지역 주민이 불상 조성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희소식



뱃살로 고민하십니까?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두통으로 고통받습니까?

뱃살 → 일주일 무료치료

효과 없으면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으로 1년에 몇 번씩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은 빙의에 접신되어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2분내로 고쳐드립니다. 단, 몸 자체에서 일어난 두통은 침으로 무료치료 해드립니다.

소납은 마음 먹으면 영의세계인 사차원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수행을 40여년간 노력하여 완공한 결과 하늘세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능력의 도를 이루었고 우연히 달마대사를 가르치신 영적 스승인 사부님을 만나게 되어 특이한 신통 묘용을 전수 받았기에 모든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원칙과 진리의 정법 도량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도의 영적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절대로 사이비가 아닙니다)

청주본산 청 심 사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83-4 Tel. 043)252-6771

서 울 법 당 주 연 정 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3-41 Tel. 02)3392-2489

상담전화 010-3176-345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